

## 한국어와 튀르키예어의 사동 범주 대조 연구(I)\*

-기본동사의 형태적 사동을 중심으로-

김성주 \*\*

### -차 례-

1. 서론
2. 사동과 사동의 유형론
  - 2.1 어휘 사동, 형태 사동, 통사 사동
  - 2.2 긴밀 사동, 의도 사동, 접속 사동
3. 한국어의 사동
  - 3.1 사동의 유형
  - 3.2 시기별 사동
  - 3.3 형태적 사동
4. 튀르키예어의 사동
  - 4.1 사동의 유형
  - 4.2 시기별 사동
  - 4.3 형태적 사동
5. 결론

---

\* 이 논문은 2019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9-OLU-2250002).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조교수(sutra01@daum.net)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어와 튀르키예어의 역사적 단계에서 사동문의 유형과 현대 한국어와 현대 튀르키예어의 기본 동사의 형태적 사동의 파생 상황을 비교한 논문이다. 현대 한국어 사동의 유형은 고유어 동사의 경우 어휘적 사동, 형태적 사동, 통사적 사동이 있고, ‘하다’ 동사의 경우 어휘적 사동, 통사적 사동, ‘(-)시키다’ 사동이 있다. 현대 튀르키예어 사동의 유형은 어휘적 사동, 형태적 사동, 통사적 사동이 있다. 현대 한국어와 현대 튀르키예어의 100개의 기본 동사의 형태적 사동 파생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어는 48개, 튀르키예어는 92개의 파생 사동소 형성이 가능하다. 고대 한국어는 형태적 사동, 중세한국어는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 근대한국어는 형태적 사동, 통사적 사동, (-)시키다 사동이, 현대 한국어는 어휘적 사동, 형태적 사동, 통사적 사동, ‘(-)시키다’ 사동이 있다. 튀르키예어의 경우 고대 튀르크어와 오스만 튀르크어는 형태적 사동만 있고, 현대 튀르키예어는 어휘적 사동, 형태적 사동, 통사적 사동이 모두 존재하지만, 고대 튀르크어, 오스만 튀르크어, 현대 튀르키예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사동 형식은 여전히 형태적 사동이다.

**주제어** : 어휘적 사동, 형태적 사동, 통사적 사동, ‘(-)시키다’ 사동, ‘-Dir-’, 오르혼 비문, 오스만 튀르크어, 현대 튀르키예어 등

## 1. 서론

태(態, voice 또는 diathesis)는 동사와 논항의 관계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이다. 동사는 상태나 행위를 표현하고 동사의 논항은 주어, 목적어, 여격어, 사격어 등의 기능을 한다. 한국어나 튀르키예어와 같은 절대격-대격 언어(absolutive-accusative language)에서 행위주(agent)가 주어이면 능동태, 피행위주(patient)가 주어이면 피동태가 되며, 고대 그리스어에서처럼 주어가 행위를 하기도 하고 동시에 받기도 하면 중동태(middle)를 된다.

태에는 능동태(active), 피동태(passive), 중동태(middle) 이외에도 사동태(causative), 증가태(applicative), 재귀태(reflexive), 상호태(reciprocal), 반사동태(anticausative), 반피동태(antipassive) 등이 있다.<sup>1)</sup>

이 글에서는 한국어와 튀르키예어의 태(Voice) 범주를 대조하려는 목적 아래 우선 사동(使動, causative)을 대조하고자 한다. 사동의 대조에서는 유형론적 논의와 두 언어의 변천을 고려한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 2. 사동과 사동의 유형론

사동 상황이 발생하려면 화자는 원인사건(causing event)의 발생 이후에 결과사건(caused event)이 발생되어 있고, 결과사건은 원인사건에 의존적이어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Shibatani 1976:1). 즉 화자는 원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과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1) 가. I told John to go.

나. I know that John went.

1) 태(Voice or Diathesis)에 대해서는 Asher, et. al.(eds.)(1994: Vol.9, pp.4938-4943) 참조.

- (2) I told John to go but he actually didn't go.
- (3) 가. I caused John to go / I made John go.  
나. I opened the door.  
다. I sent John to the drugstore.(Shibatani 1976:1 인용)

Shibatani(1976)은 (1가)와 (1나)는 사동문이 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 (1가)에서 ‘화자가 존에게 말한 사건’과 ‘존이 간 사건’이 상호의존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1나)는 (2)가 연결될 수는 없지만 ‘화자가 안 사건’과 ‘존이 간 사건’ 사이에는 역시 상호의존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1가, 1나)를 사동문으로 보지 않았다. 반면에 (3가,나,다)는 사동문으로 보았는데 원인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결과사건이 발생했고,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의 사이에는 상호의존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Song(2006)은 사동문을 ‘사동주가 어떤 것을 하는 원인 사건’과 ‘피사동주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사동주의 어떤 행위의 결과 어떤 조건이나 상태의 변화를 겪는 결과 사건’으로 구성된 복합상황(즉, 사동상황)에 대한 언어표현으로 보고 아래의 (4)를 사동문의 예문으로 제시하였다.

- (4) The teacher made Matthew paint the house.

(4)에서 사동주(causer) ‘the teacher’가 사동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피사동주(causee) ‘Matthew’가 결과사건을 실행하였는데, (4)에서 결과사건은 ‘집에 페인트칠을 하는 사건’이 된다. Song(2006)은 어떤 문장이 사동문일 경우에는 사동주와 사동사가 보다 현저할(more salient) 것과 사동 사건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사동문의 사동주는 주어로 도입되며, 사동을 표현하는 사동사의 지위는 가장 지배적인 서술어이기 때문에, 사동주와 사동사는 상대적으로 더 전경화 되어 있다(more be foregrounded)고 보았고 피사동주는 사동문에서 직접목적어나 여격어로 실현되며 원동사는 내포문의 서술어나 사동사 파생 이전의 기본동사로 쓰이므로 상대적으로 더 배경화

되어 있다(more be backgrounded)고 보았다.<sup>2)</sup>

그런데 사동은 본질적으로 의미론의 문제이지만 개별 언어마다 조금은 달리 규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어떤 언어에서라도 원동사와 사동사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사동문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죽다-죽이다’의 경우 원동사와 사동사의 관계가 성립하고, ‘-이-’라는 사동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동이라 할 수 있지만 모든 언어에서 [죽다]와 [죽이다]가 원동사와 사동사의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영어의 ‘die’와 ‘kill’이 형태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영어 화자들이 어휘 사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휘 사동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sup>3)</sup> 또 영어의 개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 언어에서 사동사인 것이 다른 언어에서는 사동사가 아닌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튀르키예어에서는 형태적 사동사가 가능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형태적 사동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sup>4)</sup> 한국어에서 ‘구르다/굴리다, 씻다/씻기다’ 등 “원동사:사동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도 튀르키예어에서는 ‘yuvarlanmak/yuvarlamak’, ‘yikanmak/yıkamak’ 등 “재귀동사:동사”의 관계로 쓰인다. 이와 같이 어떤 언어에서는 ‘원동사:사동사’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다른 언어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원동사:사동사”의 성립은 언어 보편적(language universal)이라 하더라도 특정 의미 관계에서는 개별 언어마다 고유한(language-specific) 관계에 있다.<sup>5)</sup>

2) 전경화(foreground)와 배경화(background)는 인지언어학의 기본 개념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전경화되는 물체는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배경화되는 물체는 윤곽이 부여되는 물체의 참조점이 된다.

3) 어휘 사동은 본질적으로 원동사와 사동사의 형태적 관련성이 없거나 완전히 일치해 버리고, 사동을 담당하는 고유한 사동 형식(사동 표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중시하는 견해 즉 고유한 사동 표지를 사동문 형성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견해는 어휘 사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글의 3.4 한국어 기본동사의 형태 사동사 목록과 4.4의 튀르키예어 기본동사의 형태 사동사 목록을 참조할 수 있다.

5) 튀르키예어에는 ‘피다(열다)’와 ‘피우다(열게 하다)’로 해석되는 ‘açmak’과 같은 자타동 양용동사 이외에도 ‘Ben gözlük takıyorum(난 안경을 쓴다)’과 ‘Ben (onun) gözlüğünü taktım(난 그의 안경을 썼다/난 그에게 안경을 씌웠다)’와 같이 이중적으로 해석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튀르키예어로는 ‘꽃이 피었다’는 ‘Çiçek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사동문은 “사동상황을 표현하되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이 하나의 문장으로 긴밀하게 표현되면서 원인사건은 간단하게 표현되고 결과사건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문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동의 유형론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Comrie(1989)와 Song(1996)을 들 수 있다. Comrie(1989)는 범언어적으로 사동을 ①어휘적(lexical) 사동, ②형태적(morphological) 사동, ③분석적(analytic) 사동으로 나누었다.

어휘 사동에는 보충법적 어휘 사동과 영파생 어휘 사동이 있다. 보충법적 어휘 사동은 영어의 ‘die/kill’, 러시아어의 ‘умереть(umeret)/убить(ubit)’를 들 수 있다. 영파생 사동으로는 고전 중국어(Classical Chinese)의 ‘來(lái)’를 들 수 있다.

형태적 사동은 원동사에 접사 결합 등 형태론적 절차에 의해 사동사를 만드는 사동을 말하는데 한국어의 ‘떡-’에 사동접미사 ‘-이-’가 연결된 ‘떡이-’의 파생은 사동접미사에 의한 형태 사동의 예이다. 세계 언어들에서 형태 사동의 사동 접사는 사동 접미사, 사동 접두사, 사동 접요소, 사동 접환사(circumflex) 등이 있고, 이와 다른 형태론적 절차로는 형태 반복, 성조 변동과 같은 기제가 있다.

통사적 사동(syntactic causative)(Comrie(1989)의 용어로는 analytic causative이다.)은 원동사와 사동사가 통사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의 언어들에서 통사적 사동은 주로 사동사가 포함된 모문이 원동사가 포함된 보문을 안은 문장으로 나타나는 데, 예를 들어, 영어의 ‘Sad movie makes me cry.’에서 원동사는 ‘cry’는 보문의 동사로서, 사동사 ‘make’는 모문의 동사로서 각각 분리되어 나타난다. 앞에서 사동문은 한 문장 안에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이 어우러진 문장이며 원인사건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결과사건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는데 결과사건의 주어인 ‘I’가 주격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대격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에도 통사적으로도 사동문은 느슨한 접속문이 아닌 긴밀한 복문 구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

açtı(자동사)로, ‘나무가 꽃을 피웠다’는 ‘Ağaç çiçek açtı’(타동사)로 표현되지  
\*Çiçek açıldı’라고 표현되지는 않는다(Mustafa Yölgiden 선생과 개인적 대화).

확인할 수 있다. 즉 사동사 ‘make’가 피사동주 ‘me’에게 대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보면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 한 문장 안에서 긴밀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Song(1996)은 사동의 유형을 긴밀 사동(The COMPACT Type), 의도 사동(The PURP Type), 접속 사동(The AND Type)으로 나누었다. 긴밀 사동은 원동사와 사동 형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동문으로 위에서 말한 어휘적 사동과 형태적 사동이 긴밀 사동의 범주에 속한다. 의도 사동은 원래 ‘의도’ 등 고유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던 형태가 사동 표지로 문법화되어 쓰이는 경우이다. 접속 사동은 원인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과 결과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이 접속 기제를 통하여 연결되는 사동문을 말하는데 접속 표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접속문이 아니라 사동 사건과 원인 사건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속 사동은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의 관계에 정도성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Comrie(1989)에 기대어 사동의 유형을 기술하도록 한다.

### 3. 한국어의 사동

#### 3.1 사동의 유형

한국어의 사동 유형은 아래의 (5)와 같이 어휘적 사동, 형태적 사동, 통사적 사동, ‘(-)시키-’ 사동이 있다.

- (5) 가. 어휘적 사동: 예. 가다/보내다.  
 나. 형태적 사동: 예. 먹다/먹이다.  
 다. 통사적 사동: 예. 가다/가게 하다. 먹다/먹게 하다.  
 라. ‘(-)시키-’ 사동: 예. 감동하다/감동시키다. 노래하다/노래시키다.

최현배(1937/1971: 410-420)은 한국어 사동의 유형을 ①‘이, 히,

리, 기’ 사동, ②‘시키’ 사동, ③‘-게 하-’ 사동으로 나누었다. (5)에 제시된 한국어의 사동의 유형 중에서는 (1가)의 어휘 사동을 거론하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이익섭·임홍빈(1983: 206-218)은 한국어의 전형적인 사동문을 원동사에 ‘이, 히, 리, 기, (이)우, 구, 추’가 결합된 형태 사동으로 보고 ‘-게 하-’ 사동은 한국어의 전형적인 사동문인 형태 사동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사동 형식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남기삼·고영근(1985/2014: 288-295)은 한국어의 사동을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만을 인정하고, 어휘적 사동과 ‘(-)시키-’ 사동은 인정하지 않았다. 남기삼 외(2019)도 기본적으로 남기삼·고영근(1985/2014)의 관점과 동일하다.<sup>6)</sup>

최현배(1971)에서 인정되었던 ‘(-)시키-’ 사동을 그 이후의 문법서인 이익섭·임홍빈(1983), 남기삼·고영근(1985/2014), 남기삼 외(2019) 등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구본관 외(2015)는 한국어의 사동을 기본적으로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보았으며, ‘(-)시키-’ 사동에 대한 구본관 외(2015)의 기술은 다소 모호한데,<sup>7)</sup> 한국어의 사동을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나누고, 형태적 사동에는 원동사에 ‘-이-, -히-, -기-, -리-, -우-, -구-, -추-, -으키-, -이키-’가 붙어 만들어지는 유형과 ‘-하다’로 끝나는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 때에는 ‘-하다’ 대신에 ‘-시키다’를 쓰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에 대한 기술과는 다르게 후자에 대한 기술은 별다른 구체적인 언급 없이 ‘작동하다 : 작동시키다, 공부하다 : 공부시키다’와 같이 ‘NP하다’의 사동사 ‘NP시키다’의 예를 제시하지 않고 ‘구속하다 : 구속시키다’와 같이 ‘NP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NP시키다’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유현경 외(2018)은 한국어 사동을 형태 사동과 통사 사동으로 나누고 형태 사동의 범주에 ‘-시키-’ 사동을 넣고 ‘동사성 명사+ 시키다’ 형태의 사동 서술어로 보았다. 유현경 외(2018)은 상대적으로 ‘(-)시키-’ 사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

6) 임홍빈, 이익섭(1983)은 형태적 사동을, 남기삼, 고영근(1985/2014)은 통사적 사동을 한국어의 전형적인 사동문으로 보고 있다.

7) 구본관 외(2015: 355)는 “‘-하다’로 끝나는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 때는 ‘-하다’ 대신에 ‘-시키다’를 쓴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제약 등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나 다른 사동 형식에 비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은 동일하다.

한국어의 동사를 고유어 동사와 ‘하다’ 동사로 나누어 각각의 동사에 사동이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 어휘적 사동은 존재 여부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며 본고의 논의에서도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6) 가. 고유어 동사: 형태적 사동(예. 먹이다), 통사적 사동(예. 먹게 하다), ‘(-)시키-’ 사동(예. 노래시키다)

나. 하다 동사: 형태적 사동(없음), 통사적 사동(예. 감동하게 하다, 공부하게 하다), ‘(-)시키-’ 사동(예. 감동시키다, 공부시키다)

그런데 한국어의 ‘하다’ 동사와 ‘시키다’ 동사는 항상 ‘원동사:사동사’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시키다’ 동사가 사동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NP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NP시키다’ 동사(예. 감금하다=감금시키다, 구속하다=구속시키다)의 부류가 있으며, 또한 ‘\*사랑시키다, \*생각시키다, \*존경시키다’와 같이 ‘NP시키다’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3.2 한국어의 시대별 사동

### 3.2.1 고대 한국어

고대 한국어의 자료로는 향가(鄕歌), 이두(吏讀), 구결(口訣)이 있다. 향가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14수가 있고 『균여전(均如傳)』에 11수가 있다. 전자를 ‘유사향가’, 후자를 ‘균여향가’라 간단히 부르기도 한다. 유사향가는 신라어 자료이고<sup>8)</sup>, 균여향가는 고려어의 초기 자료이

8) ‘유사향가’가 모두 신라어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사향가’를 수록한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1206-1289)은 13세기에 활동했으며, 그나마 『삼국유사』의 판본은 최고본이 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이다. 실제로 「서동요」의 표기는 창작 연대보다 훨씬 후대의 표기법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유사향가’를 기본적으로 신라어의 자료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다. 향가 자료에서 고대 한국어의 사동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이두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료의 양을 기준으로 볼 때 「신라화엄경사경조성기」(755)와 「석비로자나불조상기」(766) 등을 거론할 수 있는데, 신라 이두에서도 사동의 예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의 사동은 어휘적 사동, 형태적 사동, 통사적 사동, ‘(-)시키다’ 사동이 있으나, 고대 한국어의 사동은 형태적 사동만 존재한다. 신라 이두에서 사동은 ‘-습-’이나 ‘-습只-’로 표기된다. 전자는 고유어 동사의 사동 표기로 쓰였고, 후자는 한자어 동사의 사동 표기로 쓰였다. 아래는 「화엄경사경조성기」의 사동문의 예문이다.

(7) 가. 若楮皮脫那 脫皮練那 紙作伯士那 經寫筆師那 經心匠那  
佛菩薩像筆師走使人那 菩薩戒 授令弥(혹 楮皮脫이나 脫  
皮練이나 紙作伯士나 經寫筆師나 經心匠이나 佛菩薩像  
筆師走使人이나 菩薩戒를 받게 하며) <0755 新羅華嚴經  
寫經造成記>

나. 右諸人等 若大小便爲哉 若臥宿哉 若食喫哉 爲者 香水用尔 沐浴令只  
但(위의 사람들이 만약 대소변을 하거나 누워자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면 향수를 쓰며 목욕하게 하고)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현  
대역은 남풍현(2000)의 것임)

(7가)는 고유어 동사의 예이고, (7나)는 ‘NP ㅎ-’ 동사의 예이다. 고대 한국어에서는 고유어 동사와 한자어 동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사 어간에 사동 접미사 ‘-습(只)-’가 연결되는 사동사가 쓰였다고 할 수 있다.<sup>9)</sup>

신라어 자료인 ‘유사향가’에서 사동은 사동접미사 ‘-이-’와 ‘-오-’로 이루어진 사동사에 의해 실현된다. 또한 ‘유사향가’의 모든 용례는 고유어 동사에 접미한 사동접미사만 확인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유

9) 익명의 심사자는 (7)의 ‘습’을 사동접미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동사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으나 필자는 고전 중국어가 아닌 이두문에서 ‘습’이 자체로 사동사로 쓰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사항가'에서는 '-이-' 사동접미사보다는 '-오/우-' 사동접미사가 많이 쓰인다는 사실이다. 고대 한국어 자료가 영성(零星)한 시점에서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고대 한국어에서는 사동접미사로 '-오/우-'가 '-이-'보다 생산성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래는 '유사항가'의 예이다.

(8) 兩手集刀花乎白良(두손 모도호슬바) <願往生歌>

정리하면, 고대 한국어의 사동 형식은 형태적 사동만 쓰였으며, 사동 형식으로는 사동 접미사 '-이-'와 '-오-'가 쓰였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 3.2.2 중세 한국어

중세한국어는 전기 중세한국어와 후기 중세한국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차자표기로 되어 있고 후자는 한글로 되어 있다. 중세한국어의 사동접미사로는 '-이-' 계열, '-오/우-' 계열, '-으/으-' 계열이 있다.

전기 중세국어 자료인 균여 향가에서는 사동 접미사가 모두 '-이-'로 표기되며 이는 고려시대의 석독구결과 음독구결, 조선시대의 언해자료에서 모두 동일하다. 균여 향가와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예를 먼저 제시한다.

(9) 가. 佛前灯乙直体良焉多衣 <廣修供養歌>

나. 佛體叱海等成留焉日尸恨 <普皆廻向歌>

다. 一切善陵頼部叱廻良只 <普皆廻向歌><sup>11)</sup>

10) 신라의 구결은 현재 일본 나라(奈良)의 도다이지(東大寺)에 소장되어 있는 『화엄경』 권12-20, 일본 쇼쇼인(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화엄경』 권72-80, 오타니 대학(大谷大學) 및 일본 각처에 소장되어 있는 원효(元曉)의 『판비량론(判比量論)』, 원본이 소실된 채 복제본이 남아 있는 사토본 『화엄문의요결문답(華嚴問議要訣問答)』 등의 자료가 있다. 그러나 이들 문헌에 기입되어 있는 구결은 사동을 확인할 만한 예문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11) 익명의 심사자의 권유에 따라 (9가,나,다)의 한국어 번역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9가) 佛前灯을 고칠 때에<廣修供養歌>, (9나)부처의 바다 이룬 날은<普皆廻向歌>, (9다) 일체 善陵 전부 돌려<普皆廻向歌>.

- (10) 가. 大施會ヲ 設ツ ヲ 佛ノ 如實道ニ 示シ ヲ 立テ <화엄04:18>  
 나. 一切 衆生ヲ 爲ス 佛ノ 神力ニ 現レ <화소20:01-02>  
 다. 一切 衆生ヲ 功德 善根ニ 能ク 成熟セ ヲ 夫 <금광05:16-17><sup>12)</sup>

(9)는 ‘균여향가’의 사동문의 예인데, (9가)는 ‘-이-’(고티-) 사동사, (9나)는 ‘-오/우-’(일우-) 사동사, (9다)는 ‘-으-’(도르-) 사동사의 예문이다. ‘균여향가’에는 사동접미사 ‘-오/우-, -이-, -으/으-’ 등이 모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0)에 제시된 석독구결의 예에서 사동 형식은 ‘-이(이)-’, ‘-우(오)-’, ‘-으(으)/스(으)/스(으)/습(으)-’ 등이다.<sup>13)</sup> 즉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이-’ 사동사와 ‘-오-’ 사동사만 확인된다. 원동사를 고유어 동사와 ‘NP하다’ 동사로 나누어 보면 고유어 동사는 ‘-이-’와 ‘-오-’가 쓰였고 한자어 동사의 사동문에는 ‘-이-’가 쓰였다고 할 수 있다.

- (11) 가. 覺皇、於是ヲ 示シ 之ヲ 以テ 大法ニ … ヲ 使シ 不レ 迷ル 於テ 小道ニ … 而 默シ 得ル 乎 無レ 外ノ 之 體ニ … <소곡楞嚴1:1b\_11\_본>  
 나. 覺皇이 於是에 示之ヲ 以テ 大法ニ 使シ 不レ 迷ル 於テ 小道ニ 而 默シ 得ル 乎 無レ 外ノ 之 體ニ 得게 得게 <楞嚴1:6b>  
 다. 覺皇이 이에 큰 法을 示시 於에 小道에 어리디 아니하 得게 得게 體에 得게 得게 <楞嚴1:8b>

고려시대 음독구결의 사동문에서는 통사적 사동의 사동 형식인 ‘-이(으) -’(‘-게 -’)가 확인된다. 음독구결의 특성상 고유어 동사나 한

12) 익명의 심사자의 권유에 따라 (10가,나,다)의 한국어 번역을 보이면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10가) 大施會를 施設하여서 如實道를 보이나<화엄04:18>, (10나) 一切 衆生을 위해 일체 부처의 神力을 나타내어<화소20:01-02>, (10다) 一切 衆生의 功德 善根을 잘 成熟시키는 것이<금광05:16-17>.

13) 익명의 심사자는 “是 所レ 國土ノ 諸 怨賊ノ 恐怖ノ 難ノ 飢饉ニ 畏ル 非人ニ 畏ル 人民 興盛ニ …” 등의 예를 들어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는 ‘-이 -’가 장형사동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현대국어에서도 ‘없이 하다’가 ‘사동’으로 해석되는 점을 참조하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어 동사에 사동 표현이 직접 실현되는 경우는 없고 통사 사동인 ‘-게 하-’가 자주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11가)는 고려시대 음독구결인 ‘소곡본 능엄경’(구 박동접본 능엄경)의 사동문의 예, (11나)는 조선시대 언해 자료인 간경도감판 『능엄경언해』의 한글 구결이며, (11다) 역시 조선시대 언해 자료인 간경도감판 『능엄경언해』의 언해문이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한문 원문을 가졌는데, 원문에는 사동사 ‘使’가 있으며 약체 음독구결에서는 ‘-ㅅ ㅅ-’가 쓰였고, 한글 음독구결에서는 ‘-게 하-’, 언해문에서는 ‘-게 하-’가 쓰였다. 고려시대 음독구결 자료 이전에는 통사 사동 ‘-게 하-’ 유형이 보이지 않는데 고려시대 음독구결 자료에서야 통사 사동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가. 鸚鵡 | 그 穀食을 주서 어시를 머기거늘 <월석2:12b>

나. ㄹ라매 비 업거늘 얼우시고 ㅅ 노기시니 <용가20>

다. ㄴ문 주구려커늘 天地之量이실찌 다시 사르샤 爵祿을 주시니 <용가 77>

(13) 가. ㅅ 羅睺羅를 出家히샤 나라 니스리를 근게 하시느니 <석상6:7b>

나. 十向은 無明을 降伏히샤 中觀을 니기샤 初地에 오르샤 一分無明을 하야 <월석14:70a>

(14) 가. 어미를 濟渡하야 涅槃 得호믈 나 근게 하리라 <석상6:01b>

나. 제 座를 눈호아 앉기 하면 <월석17:51>

후기중세국어의 사동문은 형태 사동과 통사 사동이 확인되는데, 형태적 사동의 사동 형식으로는 (12,13)과 같이 ‘-이-’, ‘-히-’, ‘-기-’ ‘-오/우-’, ‘-호/후-’, ‘-으/으-’가 통사적 사동의 사동 형식으로는 (13,14)와 같이 ‘-게/기 하-’가 쓰였다.

현대 한국어의 사동 형식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휘 사동, 형태 사동, 통사 사동, ‘(-)시키-’ 사동이 쓰이는데, 통사 사동이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 고유어 동사를 원동사로 형태적 사동이, ‘하다’ 동사를 원동사로 ‘(-)시키다’ 사동과 통사적 사동이 쓰인다.

### 3.3 한국어 기본 동사의 형태적 사동

여기서는 현대 한국어의 사동 유형인 형태 사동을 기본 동사의 사동사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 형태적 사동의 생산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형태적 사동이 다른 사동 유형에 비해서 얼마나 비중이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아래는 한국어 기본 동사 중 100개를 고른 것이다.

<표 1> 한국어 기본동사 100개의 형태적 사동사의 파생 양상

하다01-×	올다01-올리다	읽다-읽히다	추다02-추이다
되다01-×	지내다-×	넣다-×	켜다01-×
보다01-보이다	팔다-×	부르다01-×	깎다-깎이다
가다01-×	가르치다-×	죽다01-죽이다	끄다01-×
오다01-×	걸다02-×	내리다01-내리우다	신다-신기다
알다-알리다	잃다-×	생기다-×	크다01-키우다
받다01-×	뉘다01-뉘이다	타다02-태우다	지우다01-×
살다01-살리다	있다01-×	보내다-×	눅다-눅추다
모르다-×	안다01-안기다	열다02-×	따르다01-떨리다
만들다-×	잇다01-×	묻다03-×	지나다-×
먹다02-먹이다	씻다-씻기다	기다리다-×	느끼다02-×
들다01-들리다	쉬다03-쉬이다	웃다-웃기다	밝다-밝히다
들다01-들이다	싸우다-×	입다01-입히다	짓다01-×
가지다-×	벗다-벗기다	마시다-×	두다01-×
주다01-×	돕다-×	치다02-치이다	남다01-남기다
나다01-내다	찍다02-×	오르다-올리다	나누다-×
들다04-들리다	피다-피우다01	놓다01-×	이르다01-×
만나다-×	볼다01-볼리다	놀다01-놀리다	얻다01-×
쓰다01-쓰이다	적다01-×	바꾸다-×	맞다01-맞히다
쓰다03-×	드리다01-×	그리다02-×	지키다01-×
앉다-앉히다	뛰다02-×	배우다01-×	밋다-×
찾다-×	쓰다02-썩우다	자다01-재우다	날다01-×
사다-사이다	뛰다01-×	걸다02-걸리다	호르다01-×
잡다01-잡히다	닫다02-×	말다03-×	넘다01-넘기다

서다01-세우다	날다01-날리다	놀라다-놀래다	움직이다-X
----------	----------	---------	--------

형태적 사동에 대해서는 생산성 이외에도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사동사의 어휘화, 원동사의 일부 의미에 대한 사동사 파생, 모어 화자의 사동사 인식, 사동사와 피동사의 동형성,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이중 사동, 특수 사동 접미사 ‘-애-, -으키-, -이키-’의 문제, 형용사의 사동화 등 세부적으로 거론해야 할 것이 많지만 여기서는 현대 한국어의 사동사의 생산성 문제만 다룬다.

설정된 100개의 기본동사 중 사동사 파생이 가능한 예는 모두 42개이다. 즉 100개 기본동사 중 58개의 동사가 형태 사동 파생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기본 동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한국어에는 ‘하다’ 동사가 고유어 동사보다 숫적으로 훨씬 많은데, ‘하다’ 동사의 경우 형태적 사동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 4. 튀르키예어의 사동

튀르크어는 동서로는 태평양 연안(예. 야쿠트어)에서 발트해 연안(예. 리투아니아의 카라임어)까지, 남북으로는 북극해 연안(예. 돌간어)에서 페르시아만 연안(예. 카시카이어)까지 이르는 아주 넓은 지역에 약 1억 5천만~2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이다(Johanson & Csato 1998). 현재 아제르바이잔어, 튀르멘어, 우즈베크어, 카라칼파크어, 카자크어, 크르그즈어, 바시키르어, 야쿠트어, 추바시어, 타타르어, 투바어, 하카스어, 살라르어, 서부 위구르어, 현대 위구르어, 크림 타타르어, 할라지어, 호라산 튀르크어 등 약 30여 개의 언어가 있다.

### 4.1 사동의 유형

현대 튀르키예어의 사동의 유형은 ①어휘적 사동, ②형태적 사동, ③통사적 사동이 있다(Kerimoğlu 2009, Doğan 2017, Durusun 2017). 어휘적 사동의 예로는 ‘gitmek’에 대한 ‘göndermek/götürmek’을 들

수 있다. 튀르키예어의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사동 접미사 ‘-DIr-’에 의한 사동사가 가능하나 ‘gitmek’은 ‘\*gitirmek/\*gittirmek’이 불가능하고 어휘적 사동사에 의해서만 사동이 실현된다.<sup>14)</sup>

(16) 가. Ben git-ti-m.

나-∅ 가-과거-1어미.

‘내가 갔다.’

나. Ben sen-i okul-a gönder-iyor-um.

나-∅ 너-목적격 학교-여격 보내-진행-1어미

‘내가 너를 학교에 보냈다.’

형태 사동 접미사 ‘-DIr-’는 튀르키예어의 사동을 대표하는 형식이다. ‘-DIr-’는 동사 자음의 유무성과 동사 모음의 구개적 모음조화, 원순성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규칙적이어서 규칙만 알면 튀르키예어를 모르는 사람도 원동사가 주어지면 사동사로 파생시킬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높고 규칙적이다.

(17) 가. Ben yemeği ye-di-m.

나-∅ 음식-을 먹-사동-1어미

‘내가 음식을 먹었다.’

나. Annem bana yemeği ye-dir-iyor.

내 엄마-∅ 나-에게 음식-을 먹-CAUS-PRE(3)

‘엄마가 나에게 음식을 먹였다.’

튀르키예어의 사동 접미사를 일반적으로 ‘-DIr-, -(I)r-, -(I)t-’라고 할 때, ‘-(I)r-’는 ‘-DIr-’가 형태음운론적 조건으로 교체하는 이형태일 경우와 어휘의 발달 과정상의 동력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DIr-’와 다른 사동접미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I)r-는 bit-/bitir-(끝나-/끝내-), iç-/içir-(마시-/마시게 하-), doy-/doyur-(배가 부르-/배를 불러

14) ‘götürmek’의 어원은 Erdal(1991: 718)에, ‘göndermek’의 어원은 Clauson(1972: 730)에 제시되어 있는데, 두 동사는 원래의 뜻을 벗어나 쓰이는 것으로 현대 튀르키예어 ‘gitmek’과는 관계가 없다.



), yat-/yadır-(눅-/눅히-) 등의 예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형태·음운론적으로 조건된 -Dir-의 이형태로 볼 수 있다.<sup>15)</sup>

튀르키예어의 통사적 사동은 일반적인 튀르키예어 문법서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튀르키예어 사동에서는 미미한 존재이다 (Dursun 2017). 튀르키예어의 통사적 사동사로는 ‘sağlamak, yol açmak, neden olmak’ 등이 있는데 이들의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sup>16)17)</sup>

- (18) 가. Kayna-mış su-∅ et-in yumuşak ol-ma-sın-ı sağla-dı.  
 끓이-ㄴ 물-주격 고기-의 부드럽- 되-명사형-소유어미-을  
 사동사-3과거  
 ‘끓인 물은 고기를 부드럽게 했다’
- 나. Bu olay mesele-nin daha karmaşık ol-ma-sın-a yol aç-tı.  
 이 사건 문제-소유어미 더 복잡하- 되-명사형-소유어미-에게  
 사동사-3과거  
 ‘이 사건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했다/만들었다’
- 다. Güneş ışığı-ı oda-nın parlak ol-ma-sın-a neden ol-du.  
 해 빛-소유어미 방-의 밝- 되-명사형-소유어미-에게 사동사-3과거  
 ‘햇빛이 방을 밝게 했다’

15) 현대 튀르키예어의 doy-, yat-의 사동사가 doyur-, yadır-로 파생되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아마도 각 단어의 개인적인 역사에서 어떤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6) ‘sağlamak’은 ‘공급하다, 제공하다’의 뜻을 가지는 동사로 19세기 중기 오스만 튀르키예어에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17) 현대 튀르키예어의 ‘olmak’과 ‘etmek’은 한국어의 ‘되-, 하-’와 유사한 점이 있다. 예. ‘lağvol-/lağvet- (폐지되-/폐지하-), zıyan ol-/zıyan et- (낭비되-/낭비하-), tedirgin ol-/tedirgin et-(걱정되-/걱정하-)’. 이 중에서 ‘hasta ol-’(병들-) vs. ‘hasta et-’(병들게 하-)와 같이 ‘NP+ol-’의 사동사로 ‘NP+et-’가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olmak’이 본동사로 쓰일 경우의 사동사는 ‘etmek’이 아니라 ‘oldurmak’(되게 하-)이 된다. 한국어의 ‘-시키-’와 튀르키예어의 ‘etmek’이 서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파멸하-/파멸시키-’는 튀르키예어로 ‘mahvol-/mahvet-’으로 사용되며, ‘납득되-/납득시키-’는 ‘ikna ol-/ikna et-’으로 사용된다.

## 4.2 시기별 사동

### 4.2.1 고대 튀르크어<sup>18)</sup>

고대 튀르크어는 현재 몽골에서 발견된 오르혼 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오르혼 비문은 제2 돌궐시대(A.D. 682-744년)의 빌게(Bilge) 카간과 그의 동생 켈 티긴(Kül Tigin) 그리고 그 시대의 재상(宰相)이었던 투뉴쿠크의 비문 등이 있다.<sup>19)</sup>

고대 돌궐어 자료로는 제2 돌궐시대 자료인 오르혼 비문, 즉 켈리 초르 비문, 투뉴쿠크 비문, 켈 테긴 비문, 빌게 카간 비문 등 돌궐문자 비문들이 있다. 그 외 고대 위구르 원고와 11세기 카라한 제국의 튀르크 텍스트 등도 있다.<sup>20)</sup> 고대 튀르크어에서 사동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튀르크어에는 ‘-gUr-, -(X)t-, -tUr-, -Ur-, -t(X)z-, -(X)z-’ 등의 사동접미사가 있다(Clauson 1972:xlvi-xlvii).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인지는 모르나 고대 튀르크어에는 형태적 사동만 있고, 어휘적 사동이나 통사적 사동은 없다.

둘째, 이중 사동사(사동 접미사의 중첩 현상) 현상이 있다. 예. olmak “앓다” > \*olgurmak “세우다, 건립하다” > olgurtmak “세우게 하다”/“앓게 하게 하다”(Clauson 1972:139).<sup>21)</sup> 고대 튀르크어 논의에서 이중 사동 또는 사동 접미사의 중첩 현상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고대 튀르크에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이중 사동’(예. 앓히게 하다)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 고대 튀르크어에 대해서는 Erdal(2014)를 기본으로 용례는 Clauson(1972)를 참조하였다.

19) 본고에서 사용한 고대튀르크어에 대한 정보는 Tekin, T(1988), Tekin, T(2004), Tekin, T(2004)를 기본으로 Erdal(2004)를 참조하였다. Tekin, T(1988)과 Tekin, T(2004)에 대해서는 이용성 역(2008)을, Tekin, T(2004)에 대해서는 이용성 역(2012)를 주로 참조하였다.

20) 이 자료들은 필자가 직접 이용한 자료가 아니라 대체로 Erdal, M.(2004)에서 사용된 자료들이다.

21) 현대 튀르키예어의 대표적인 사동접미사인 ‘-Dir-’도 원래 사동접미사 ‘-t-’와 ‘-(I)r-’로 이루어진 이중사동일 가능성이 있다(Erdal 1991:709).

셋째, 사동사의 피동적 해석이 가능하다. 예. utuzmak “놀이에서 지다”(IB 29) < utmak “놀이에서 이기다”(IB 29)(Clauson 1972:372), ‘basitmak’(습격당하다, 지다)(T 34) < basmak “누르다, 밟다”(Clauson 1972:74), ‘basitmak’은 ‘남이 나를 누르게 하다, 남이 나를 밟게 하다’로 해석된다. 즉 원래는 사동사인데 원동사의 목적어가 사동주(causer)<sup>22</sup> 자신이 되어 그 결과 피동의 뜻이 된다. ‘basitmak’도 직역하면 ‘놀이에서 이기게 하다’ 즉 ‘놀이에서 (나의 상대방을) 이기게 하다’이나 결과적으로 ‘놀이에서 (내가) 지다’가 된다. 이런 예로는 ‘armak’(속이다) > ‘arturmak’(속다)(Clauson 1972:210)도 있는데, ‘arturmak’은 직역하면 ‘속이게 하다’ 즉 ‘(상대방이 나를) 속이게 하다’이나 결과적으로 ‘(내가) 속다’가 된다.

#### 4.2.2 오스만 튀르크어

6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튀르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으며 시베리아는 물론 유럽과 지중해까지 뻗어나갔다. 특히 오구즈 튀르크족의 분파인 셀주크족은 11세기에 오늘날 현대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가가우즈어 등의 직접적인 조상어인 오구즈어를 아나톨리아로 들여왔다. 11세기에는 카라한 칸국의 튀르크어 학자 마흐무드 알-카슈가리가 오스만 튀르크어 방언집인 ‘Divânü Lügati’t-Türk’를 저술했고 여기에는 튀르크어 사전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 튀르크어 화자의 분포를 알 수 있다.

현대 튀르키예의 민족적 문화적 조상으로 여겨지는 카라한 칸국과 셀주크 튀르크족이 950년경에 이슬람교로 개종하였고 그 후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행정 언어는 페르시아어, 아랍어가 많이 섞인 일종의 혼종어였는데 이 언어를 오스만 튀르크어라 한다. 즉 오스만 튀르크어는 고대 튀르크어를 기반으로 페르시아어와 아랍어의 어휘는 물론 심지어 문법까지 대거 차용된 상태의 언어이었다. 오스만 튀르크 시대의 순수 튀르크어 “kaba Türkçe(거친 튀르크어)”가 하층민이나 지방에서 사용

22) Erdal(1991)은 ‘Instig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되었는데 이 언어가 현대 튀르키예어의 기초가 되었다.

(19) 가. Kalfa-ya bir ev yap-dır-acağ-ım.

건축가-에게 한 집 만들-사동-미래-1어미

‘건축가에게 집을 만들게 할 것이다.’

나. Ol tasvir-li kitab-ı çocuk-lar-a oku-t-acağ-ım.

그 사진-접미사 책-을 아이-복수-에게 읽-사동-미래-1어미

‘그 사진이 있는 책을 아이들에게 읽힐 것이다.’

다. Yarın bir dane-sin-i getir-d-ebil-ir-im.

내일 한 개-소유어미-을 가져오-사동-가능-현재-1어미

‘내일 한 개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19)의 예들을 살펴보면 오스만 튀르크에도 형태적 사동의 유형만 확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2.3 현대 튀르키예어

현대 튀르키예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Mustafa Kemal Attatürk)의 후원하에 현대 튀르키예어를 연구할 목적으로 1932년 ‘튀르키예어 언어 학회(TDK)’가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당시 오스만 튀르크어에 녹아 있던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등의 외래어 요소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아랍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많은 단어가 삭제되었고 대신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튀르크어 단어들이 발굴되었다.

현재 튀르키예는 1940년대 이전에 태어난 아랍어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단어를 사용하는 오래된 세대와 새롭게 바뀐 고유한 튀르크어에서 가져왔거나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튀르키예어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전자는 ‘학생’에 대해 아랍어에서 유래한 ‘Talebe’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후자는 순수 튀르크어에서 만들어진 ‘Öğrenci’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차이도 나이 많은 세대가 점차 사라짐으로서 현재에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는 튀르키예의 국부(國父)인 아타튀르크가 1927년 의회에서 행한 장문(長文)의 튀르키예어 연설문이 청중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해서 1963년, 1986년, 1995년 등 세 차례나 번역되었던 사실이 튀르키예어의 급격한 변화를 말해 준다.

### 4.3 형태적 사동

튀르키예어의 형태적 사동에 대해서도 사동사의 생산력, 외래어 어근을 가진 ‘NP+ etmek’ 동사의 사동, 이중 사동 현상<sup>23)</sup>, ‘açmak’과 같은 자·타동 양용동사, 이중 사동사의 피동적 해석,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문제, 사동 접미사 ‘-DIr-’와 ‘-t-’의 문제, 형용사의 파생사동사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여기서는 튀르키예어 기본 동사의 사동 파생 문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아래의 <표 2>는 튀르키예어 기본 동사 100개의 사동사 가능 여부를 제시한 것이다.<sup>24)</sup>

<표 2> 튀르키예어 기본 동사 100개의 형태 사동사 파생 양상

açmak açtırmak	-	kesmek kestirmek	-	doğmak doğurmak	-	sunmak	- ∅
akmak akıtmak	-	kılmak kıldırmaq	-	dölmek doldurmak	-	susmak susturmak	-
almak aldırmak	-	kırmak	- ∅	dönmek döndürmek	-	sürmek sürdürmek	-

23) ‘uyu-t-tur-t-mak’(재우게 하게 하다)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삼중 사동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4) 튀르키예어 기본 동사 100개는 앙카라대학 TÖMER의 Dr. Kerem Sarıgül이 제 공하는 튀르키예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200개 동사 목록에서 동사 어근으로만 되어 있는 동사 약 95개에 5개의 동사를 튀르키예어 모어 화자인 Yolğiden Mustafa 선생이 추가한 것이다. 익명의 심사자는 튀르키예 Dil Kurumu(언어협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기본동사 목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인도 가능한 한 튀르키예의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기본동사 목록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Dr. Sarıgül이 만든 목록의 URL은 다음과 같다. <https://www.turkceogretimi.com/tavsiyeler/turkcede-en-cok-kullanilan-200-fiil>

aramak aratmak	-	kızmak kızdırmak	-	durmak durdurmak	-	tanımak tanıtmak	-
artmak artırmak/arttır mak	-	korkmak korkutmak	-	duymak duyurmak	-	tutmak tutturmak	-
aşmak aşırmak	-	korumak korutmak	-	düşmek düşürmek	-	uğramak uğratmak	-
atmak attirmek	-	koşmak koşturmak	-	etmek e t t i r m e k (보조 동사)	-	unutmak unutturmak	-
bakmak baktirmek	-	koymak koydurmak	-	geçmek geçirmek	-	uymak uydurmak	-
basmak bastırmak	-	kurmak kurdurmak	-	gelmek getirmek	-	uyumak uyutmak	-
benzemek benzetmek	-	kurumak kurutmak	-	gerekmek gerektilmek	-	uzamak uzatmak	-
bırakmak bıraktırmak	-	okumak okutmak	-	girmek girdirmek	-	üremek üretmek	-
bilmek bildirmek	-	olmak oldurmak	-	gitmek - ∅	-	varmak vardırmak	-
binmek bindirmek	-	oturmak oturtturmak	-	giymek giydirmek	-	vermek verdirmek	-
bitmek bitirmek	-	oynamak oynatmak	-	görmek göstermek	-	vurmak vurdurmak	-
bozmak bozdurmak	-	ödemek ödetmek	-	gülmek güldürmek	-	yakmak yaktırmak	-
bulmak buldurmak	-	öğrenmek öğretmek	-	içmek içirmek	-	yanmak yandırmak	-
büyüme büyütmek	-	ölmek öldürmek	-	inanmak inandırmak	-	yapmak yaptırmak	-
çalmak çaldırmak	-	sanmak sandırmak	-	inmek indirmek	-	yaramak - ∅	-
çekmek çektirmek	-	satmak sattırmak	-	istemek istettirmek	-	yaşamak yaşattırmak	-
çıkmaq çıkarmak	-	saymak saydırmak	-	kaçmak kaçırmak	-	yatmak yatırmak	-
çizmek çizdirmek	-	seçmek seçtirmek	-	kalmak kaldırmak	-	yaymak - ∅	-
dayamak dayatmak	-	sevmek sevdirmek	-	kalkmak kaldırmak	-	yazmak yazdırmak	-
değmek değirmek	-	sezmek sezdirmek	-	kapamak kapatmak	-	yemek yedirmek	-
demek - ∅	-	sokmak sokturmak	-	katmak - ∅	-	yetmek yetirmek	-
dilemek - ∅	-	sormak sordurmak	-	kazmak kazdırmak	-	yürüme yürütmek	-

<표 2>를 보면 튀르키예어 기본 동사 100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을 제외하더라도 100개의 기본동사 중 8개를 제외한 92개 사동사 파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술적으로 말하면 약 92%의 튀르키예 동사는 사동사 파생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 결론

이 글은 한국어와 튀르키예어의 태(Voice) 범주를 대조할 목적으로 먼저 사동 범주를 아주 좁은 범위에 국한하여 대조한 글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와 튀르키예어에 대한 본격적인 사동 대조를 위해서는 많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어와 튀르키예어의 역사적 변천과 기본 동사의 사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동 대조에 대한 바탕이 되는 점들을 살펴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논의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현대 한국어 사동의 유형은 어휘적 사동(예. 가다/보내다), 형태적 사동(예. 먹다/먹이다), 통사적 사동(예. 먹다/먹게 하다), ‘(-)시키다’ 사동(예. 감동하다/감동시키다)이 있다. 현대 튀르키예어 사동의 유형은 어휘적 사동(예 gitmek/götürmek), 형태적 사동(예 yemek/yedirmek), 통사적 사동(예 neden olmak)이 있다. 현대 한국어의 사동은 통사적 사동이 주를 이루지만 현대 튀르키예어 사동은 형태적 사동이 주를 이룬다.

둘째, 고대 한국어의 사동 표지는 ‘-습只-, -이-’ 등이 쓰였으며 이들은 현대 한국어의 사동표지 ‘-이-’와 맞닿아 있다. 고대 튀르키예어의 사동표지는 ‘-Ur-, -(X)t-, -tUr-, -gUr-, -t(X)z-’ 등이 있는데 이들은 현대 튀르키예어의 사동표지 ‘-(I)r-, -t-’와 맞닿아 있다.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게 하-)은 중세국어 시기에, ‘(-)시키다’ 사동은 근대국어 후기에 발생하였다. 튀르키예어의 형태적 사동은 고대 튀르키예어에서부터 활발하게 쓰였으며, 어휘적 사동사인 ‘göndermek’도 오르혼 비문에서 확인되고, 통사적 사동 중 ‘sağlamak’은 오스만 튀르키예어 시기부터 발생하였다. 시기별 사동을 대조하면 한국어는 형태적 사동이 지배

적이었다가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튀르키예어는 형태적 사동이 고대 튀르크어로부터 현대 튀르키예어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생산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은 일부의 고유어 동사의 사동사로만 존재하며 파생 규칙도 정교하지 못하다. 튀르키예어의 형태적 사동은 이론적으로 거의 모든 기본 동사를 사동사로 파생시킬 수 있어 100개의 기본동사 중 92개의 동사가 형태적 사동사 파생이 가능하다.<sup>25)</sup> 그러나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은 생산성이 낮아 100개의 기본동사 중 48개만 형태적 사동사 파생이 가능하다.

---

25) 물론 ‘gitmek’은 ‘\*gitirmek’이나 ‘\*gittirmek’으로 파생되지 못하고 ‘göndermek’ (보내-)이나 ‘götürmek’(가져가-/데려가-)으로 파생되는 경우도 있다.



[Abstract]

## A Contrastive Study on between Korean and Turkish Causatives( I )

-Focusing on the morphological causative of the basic verb-

Kim, Seongju(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s the types of causative constructions at the historical stage of Korean and Turkic languages with the derivative phenomena of the morphological causative of the 100 basic verbs of modern Korean and modern Turkish language. The types of modern Korean include lexical, morphological, syntactic and NPsiki- causatives, while the latter includes lexical,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ausatives. Looking at the morphological causative derivation of 100 basic verbs in modern Korean and Turkish language, 48 in Korean and 92 in Turkish can be formed as morphological causative verbs. Ancient Korean has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ausatives, Pre-modern Korean has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ausatives and modern Korean has lexical, morphological, syntactic and NPsiki- causatives. In the case of Turkish language, ancient and Ottoman Turkic languages have only morphological causative, but modern Turkish has all lexical,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ausatives, however the most powerful causative is still morphological one.

**Key words** : lexical causative, morphological causative, syntactic

causative, NPsiki causative, -Dir-, Orhon Inscription, Ottoman  
Turkic, Modern Turkish, etc.

## [참고문헌]

## ■ 단행본

- 김성주, 『한국어의 사동』 서울: 한국문화사, 2003.
- 김주원·유원수·이용성·최문정·최운호·이호영·전순환·권재일, 『언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알타이언어 문서화』, 과주: 태학사, 2011.
- 연재훈,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2011.
- Asher, et. al.(ed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Oxford: Pergamon Press, 1994.
- Clauson.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 Comrie, B.,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Dixon, R.M.W. & A.Y. Aikenvald *Changing Valency, Case studies in Transi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Erdal, M. *A Grammar of Old Turkic*, Leiden: Brill, 2004.
- Johanson, L. & E.A. Csato *The Turkic Languages*, London: Routledge, 1998.
- Song, J.J., *Causatives and Causation: A Universal-typological Perspective Construction*, London: Addison Wesley Longman, 1996.
- Tekin, T. *Orhon Yazıtları+ Tunyukuk Yazıtları*.(이용성 역, 『돌궐비문연구-퀵 턴 긴 비문, 빌개 카간 비문, 투뉴쿠크 비문』, 서울: 제이앤씨, 2008.)
- Tekin, T. *ORHON TÜRKÇESİ GRAMERİ*,(이용성 역 『돌궐어 문법』, 한국학술정보(주), 2012.)
- Underhill, *Turkish Grammar*, MIT Press, 1976.
- Whaley, L. J. *Introduction to Typ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1997.

## ■ 논문 및 기타 자료

- 강명순, 「국어 ‘태’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강명순, 「사·피동사 ‘ㅎ이다’ 연구」, 『한글』 299, 한글학회, 2013, 77-112면.
- 강명순, 「{시키-}의 변화 과정과 {ㅎ이-}와의 관련성」, 『한글』 304, 한글학회, 2014, 31-59면.
- 김성주, 「석독구결의 사동 표현」,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2005, 142-172면.

- 김성주,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사동문 대조 연구」, 『영주어문』 41, 영주어문학회, 2019  
가, 57-81면.
- 김성주, 「한국어 사동 유형으로서의 ‘(-)시키-’ 사동」, 『한민족문화연구』 67, 한민족문  
화학회, 2019나, 279-308면.
- 김태우, 「만주-통구스어의 사동접미사와 피동접미사의 공용 현상에 대하여 -문법화와  
타동성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21,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4, 53-82면.
- 김현정, 「현대 터키어의 자타 양용동사에 대해」,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9,  
68-77면.
- 박은석, 「한국어의 어휘적 사동」, 『언어와 언어학』 58,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13, 179-213면.
- 연재훈,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한국언어학회, 1997,  
107-132면.
- 장윤희, 「중세국어 피사동사 파생법 연구의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  
회, 2015, 33-68면.
- Durusun, S. 「Türkçede Ettirgen Yapılar」, Hacettepe Üniversitesi Doktora Tezi,  
2017.
- Karacan, H.Ş. 「Korece ve Türkçede ettirgenlik」, Doktora Tezi, Erciyes  
Üniversitesi, 2021.
- Key, G. 「The Morphosyntax of the Turkish Causative Construction」, Doctoral  
diss. The University of Arizona, 2013.
- Shibatani, M.,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s: a conspectus」, In  
Shibatani, M. (Eds.), *Syntax and Semantics 6: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Shibatani, M. and Pardeshi, P., 「The causative continuum」, In Shibatani, M.  
(Eds.), *The Grammar of Causation and Interpersonal Manipulation*,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02.
- Song, J.J., 「Causatives: Semantic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2nd ed.)* vol. 2. Oxford: Elsevier, 2006, pp. 265-268.